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3월 27일(금)

관련자료: 사진자료

2026 제네시스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 TAWA 선정 '텍사스의 럭셔리 차량' 수상

- 2026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 정제된 감각과 주행 성능 전반적인 드라이빙 경험에서 높은 평가
- 제네시스 4년 연속 '텍사스의 럭셔리 차량' 수상

2026 제네시스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현지명 G70 프레스티지 그래파이트)이 미국 텍사스 자동차 기자 협회(Texas Auto Writers Association, 이하 TAWA)로부터 '텍사스의 럭셔리 차량(Luxury Vehicle of Texas)'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텍사스의 럭셔리 차량'에 이름을 올리며, 대담한 디자인과 정제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테드 멘지스테(Ted Mengiste) 제네시스 북미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수상은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에 담긴 장인정신과 퍼포먼스에 대한 제네시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G70는 자동차 애호가든 물론 일상적인 주행을 즐기는 고객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정제되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TAWA 소속 자동차 전문 기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실내와 외관, 성능 등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차량을 평가했다. 심사는 퍼포먼스와 정교함, 혁신성을 갖춘 차량을 선정하는 연례 행사인 '텍사스 오토



PRESS RELEASE

라운드업(Texas Auto Roundup)’ 기간 중 실제 도로 시승을 통해 진행됐다.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은 역동적인 주행 감각과 높은 완성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앞세워 다양한 경쟁 차종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TAWA 회장 마크 뉴먼(Marc Newman)은 “제네시스 G70 는 현대적인 스포츠 세단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모델로, 고급스러움과 날카로운 핸들링, 자신감 있고 선형적인 동력 전달 사이에서 보기 드문 조화를 이뤘다”며 “탁월한 정교함과 역동적인 정밀성은 오랜 전통을 지닌 유럽 경쟁 모델들조차 쉽게 넘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은 뛰어난 성능과 제네시스 특유의 정제된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낸다. 3.3 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을 탑재했으며,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스포츠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을 적용해 안정감 있으면서도 몰입감 있는 핸들링을 구현했다. 외장 컬러는 전용 컬러인 ‘세레스 블루’와 ‘바트나 그레이’로 제공되며, 다크 크롬 크레스트 그릴과 19 인치 다크 피니시 휠이 적용된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울트라 마린 블루 나파 가죽과 오렌지 콘트라스트 스티치, 마이크로파이버 스웨이드 헤드라이너, 12.3 인치 3D 디지털 클러스터를 갖췄다.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을 적용해 편안함과 신뢰감, 일상 주행에서의 사용 편의성까지 높였다. [끝]